

신지도·고금도·조약도 물과 하나 된 남도 끝자락의 섬.섬.섬

겨울바람이 차갑고 따뜻한 곳이 그림다. 남도 끝자락의 섬과 섬, 물과 섬을 잇는 연도·연륙교를 따라 완도로도, 강진으로도 길이 열린 신지도·고금도·조약도를 둘러봤다. 완도와 강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이들 섬은 색다른 맛을 안겨주는 매력 덩어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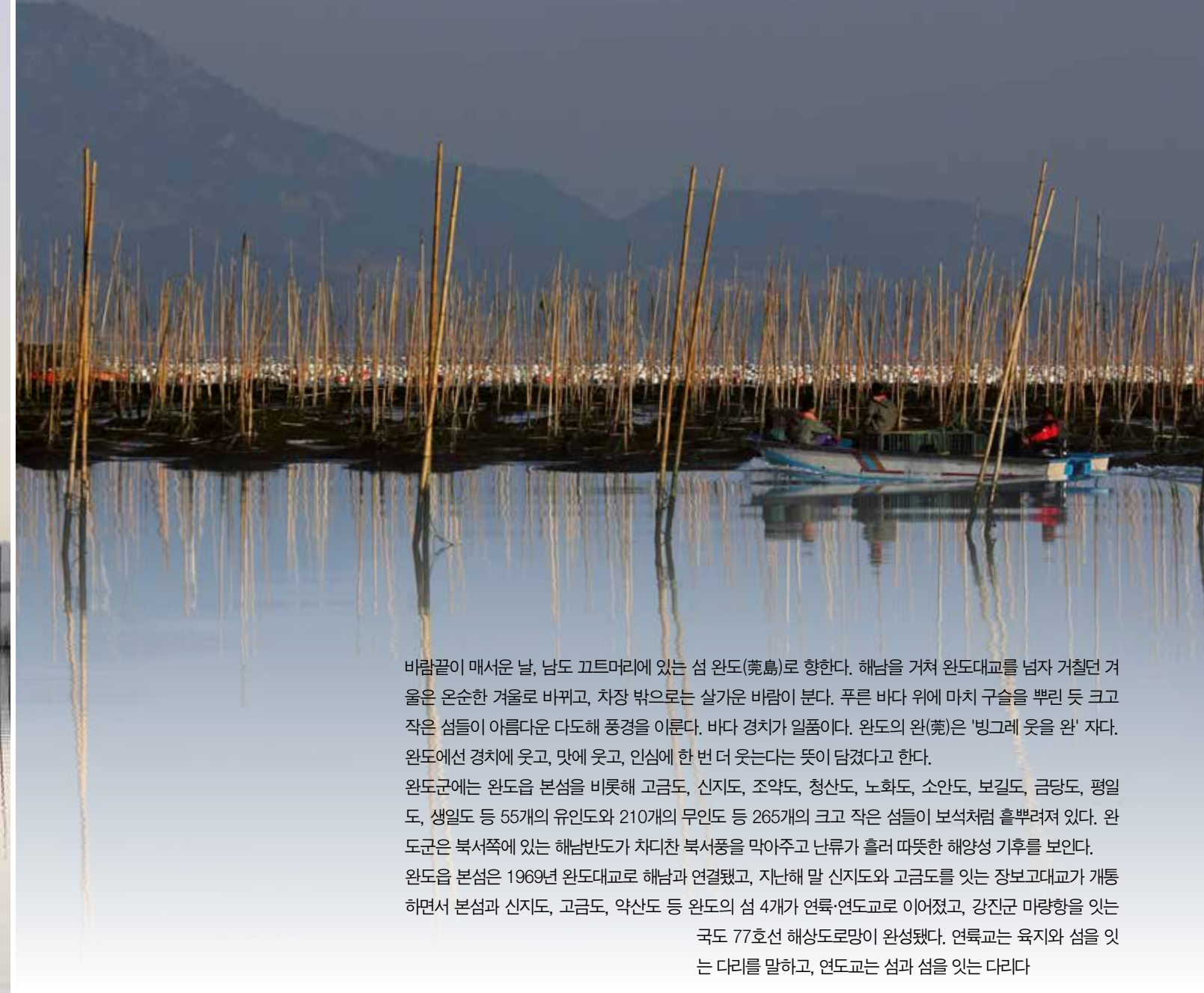
글 이창호 기자·사진 전수영 기자



1

신지도·고금도·조약도

남도 끝자락의 완도에서 신지대교를 건너면 명사십리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신지도이고, 신지도에서 장보고대교를 건너면 이순신 장군의 최후가 선연히 새겨진 고금도다. 고금도에서 약산연도교를 건너면 산이 깊어서 약초가 많이 나는 조약도이고, 고금대교를 건너면 미항으로 꼽히는 강진의 마량항이다.



바람결이 매서운 날, 남도 끄트머리에 있는 섬 완도(莞島)로 향한다. 해남을 거쳐 완도대교를 넘자 거칠던 겨울은 온순한 겨울로 바뀌고, 차장 밖으로는 살기운 바람이 분다. 푸른 바다 위에 마치 구슬을 뿌린 듯 크고 작은 섬들이 아름다운 다도해 풍경을 이룬다. 바다 경치가 일품이다. 완도의 완(莞)은 '빙그레 웃을 완' 자다. 완도에선 경치에 웃고, 맛에 웃고, 인심에 한 번 더 웃는다는 뜻이 담겼다고 한다.

완도군에는 완도를 본섬을 비롯해 고금도, 신지도, 조약도, 청산도, 노화도, 소안도, 보길도, 금당도, 평일도, 생일도 등 55개의 유인도와 210개의 무인도 등 265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다. 완도군은 북서쪽에 있는 해남반도가 차지한 북서풍을 막아주고 난류가 흘러 따뜻한 해양성 기후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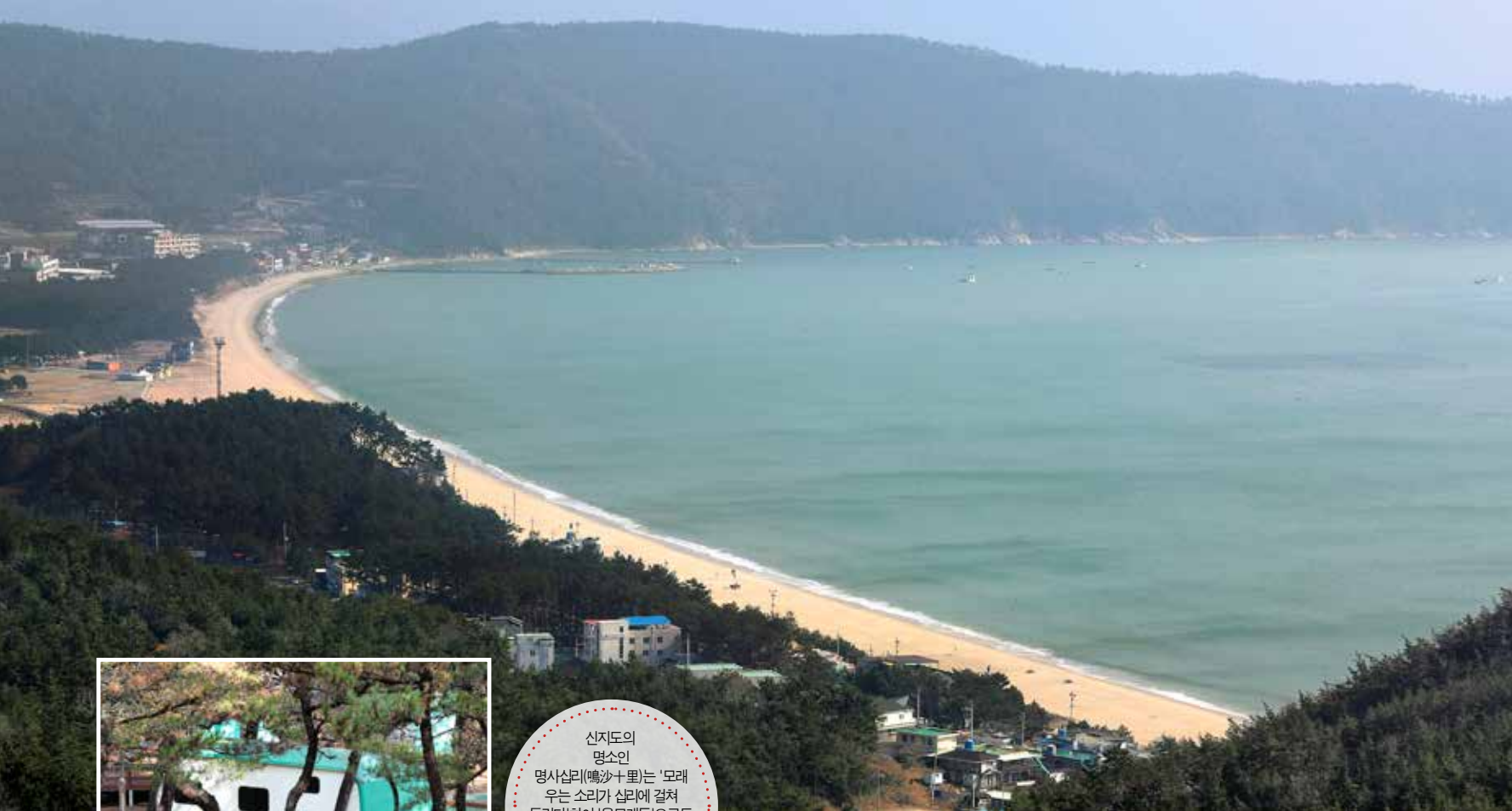
완도를 본섬은 1969년 완도대교로 해남과 연결됐고, 지난해 말 신지도와 고금도를 잇는 장보고대교가 개통하면서 본섬과 신지도, 고금도, 약산도 등 완도의 섬 4개가 연륙·연도교로 이어졌고, 강진군 마량항을 잇는 국도 77호선 해상도로망이 완성됐다. 연륙교는 육지와 섬을 잇는 다리를 말하고, 연도교는 섬과 섬을 잇는 다리다

십리 가득 펼쳐진 은빛 모래밭, 혼자 걷는 호젓함

완도 동쪽에 있는 신지도(薪智島)는 2005년 신지대교 개통으로 물과 연결됐다. 완도에서 길이 840m의 신지대교를 건너면 나오는 휴게소는 명사갯길 사발점이다. 명사갯길은 강독마을과 물하태를 지나 해안절벽과 원시림을 따라 명사십리해수욕장에 이르는 총 10km 코스로 오래전 신지도 주민들이 완도로 가는 철부선



어린이들은 조류가 완만하고 물이 잘 드러나는 청정한 바다에 대나무 지주를 박고 가늘게 쪼개 만든 대나무 밧을 넣어 매생이를 길러 낸다.



신지도의
명소인
명사십리(鳴沙十里)는 '모래
우는 소리가 십리에 걸쳐
들린다'하여 '울모래등'으로도
불린다. 아영장, 텐트촌,
카리반이 소나무 숲 속에
박혀 있다.

을 타기 위해 수시로 드나들던 오솔길이었다.

휴게소 주차장에서 뒤편 언덕으로 60m 정도 오르면 완도항과 주도, 완도읍과 완도타워가 그림처럼 펼쳐진다. 완도항 바로 앞
에 있는 주도(천연기념물 제28호)에는 137여 종의 푸른 상록수들이 뽀뽀이 심어져 겨울에도 푸름이 더욱 빛을 발한다. 햇살을
머금으면 숲이 반짝거린다.

1980~90년대 완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던 신지도 명사십리(鳴沙十里)는 '밝을 명'(明)이 아닌 '울 명'(鳴) 자를 쓴다. 명사(鳴
沙)는 '모래가 운다'는 뜻으로 '은빛 모래밭이 파도에 쓸리면서 내는 소리가 십리에 걸쳐 들린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이다. 이런
이름을 갖게 된 사연은 안동 김씨의 계략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신지도로 유배 왔던 문신 이세보가 밤이면 이곳에서 유배의
설움과 울분을 실어 모래톱에 시를 쓰고 읊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울음소리 같아 '울 명' 자를 붙였다고 전해진다.

회고 가는 모래의 백사장이 활처럼 휘어진 해변의 길이는 4km나 되는데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매년 100만 명의 피서객이 찾고
있는 해변은 아직 한산하다. 폭 150m에 달하는 광활한 은빛 백사장을 혼자 걷는 호젓함이 좋다. 갯내음을 품고 불어오는 바
닷바람이 포근하다. 적막하다 못해 쓸쓸한 해변에서 누구나 시인이 된다. 김신용 시인은 십리길이 은빛으로 빛난다고 노래했다.
"우네,/ 천리 길 달려온 파도/ 가슴 시퍼렇게 멎들어서 우네/ 눈앞에 청산靑山 두고/ 청산에 가 닿지 못하는 세월/ 울모래등 기
어서 기어서 넘으면/ 부서지고 부서진 마음/ 그 푸르름에 가슴 적실까/우네,/ 십리 가득 펼쳐진 은빛 모래밭/ 만파로 달려와 부
서지는 파도들/ 가슴 시퍼렇게 멎들어 우네"

명사십리를 빠져나와 백사장 뒤로 우뚝 서 있는 상산(象山·352m)으로 향한다. 형세가 코끼리를 닮은 상산의 7부 능선쯤에
자리 잡은 청해사까지 차를 타고 이동한다. 단청을 하지 않은 대웅전 옆으로 난 가파른 산길 300m를 오르면 섬에서 가장 높
다는 상산의 정상이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정상에 서면 섬과 섬을 잇는 장보고대교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사방팔방으로 푸
른 바다 위에 올망졸망한 섬들이 둥둥 떠 있고, 남쪽 바다에 떠 있는 청산도도 손에 잡힐 듯하다.

명사십리가 내려다보이는 대곡리 구릉에는 신지항일기념탑과 항일기념자료관이 세워져 있다. 신지도는 일제강점기 소안도와



함께 '저항의 섬'이었고, 자료관에는 광주학생운동을 이끌었던 장석
천 선생과 지역 항일운동가 임재갑 선생의 흉상과 독립운동의 기록물
이 전시돼 있다.

왕실의 피가 섞였으나 역적으로 몰려 가나긴 유배생활을 하면서도 '동
국진체'라는 글씨를 남긴 원고 이광사(1705~1777)가 삶을 마감했
던 유배지에서는 허름한 농가와 100년 넘는 감나무 한 그루가 처절
한 절망 속에 살았던 그의 삶을 대변해주는 듯하다. 마당 텃밭에는 해
풍을 맞고 싱그럽게 자란 봄동이 가득하다. 신지도에서 또 빼놓지 말
아야 할 곳이 바다 풍경이 아름다운 동고리 해수욕장. 5월이면 왜가
리가 찾아와 소나무 숲에 둥지를 트는 가인리 왜가리서식지다.

낮선 풍경으로 다가오는 매생이 양식장

신지도에서 1.31km의 사장교인 장보고대교를 건너면 고금도(古今島)
다. 지난해 말 장보고대교 개통으로 완도에서 강진, 해남까지의 육상
순환도로망이 완성됐다. 강진에서 완도까지 가는 데 1시간 40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됐는데 차창 너머로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바다 풍
광들이 주렁주렁 매달린다. 고금도 남쪽 해안에 대나무 밭이 커져이
채워져 있다. 어선 한 척이 수시로 물살을 가르며 양식장을 드나든다.
지주식 매생이 양식장은 신기하고 낯선 풍경으로 다가온다.

겨울 바다 위에 끝 간 데 없이 꽃힌 대나무 지주와 푸른 하늘은 마치
추상미술 작품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밀물 때면 대나무
밭이 가라앉고 썰물 때면 대나무 밭에 파랗게 달린 매생이가 드러난
다. 한겨울 바닷바람을 뚫고 채취하는 매생이는 한때 김 양식에 방해
되는 잡채였다. 인근 넓도 어민들이 국을 끓여 먹어보니 별미였고, 전
국 최초로 매생이 양식에 성공했다. 필필 끓여도 김이 나지 않은 매생
잇국을 처음 먹다 보면 입천장을 데기에 십상이라 '미운 사위에게 매



유배자인
신지도에서 삶을
마감한 이광사는
동국진체를 완성한 서예가다.
그의 글씨는 해남의 대흥사,
강진 백련사, 구례 천은사
등에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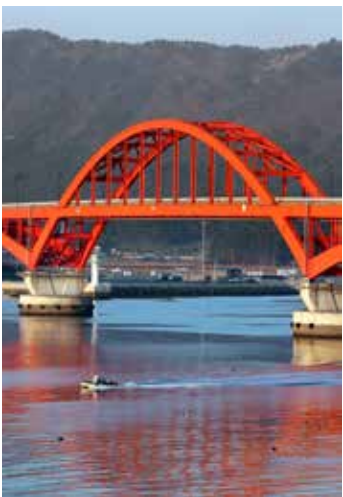
조약도의
가사해수욕장은
활처럼 흰 작은 해변이지만
동백나무와 후박나무가
해안을 둥글게 감싸고 있다.
해수욕장 뒤편 삼문산에는
진달래공원이 있다.

섬과 섬, 물과 섬 잇는 연륙·연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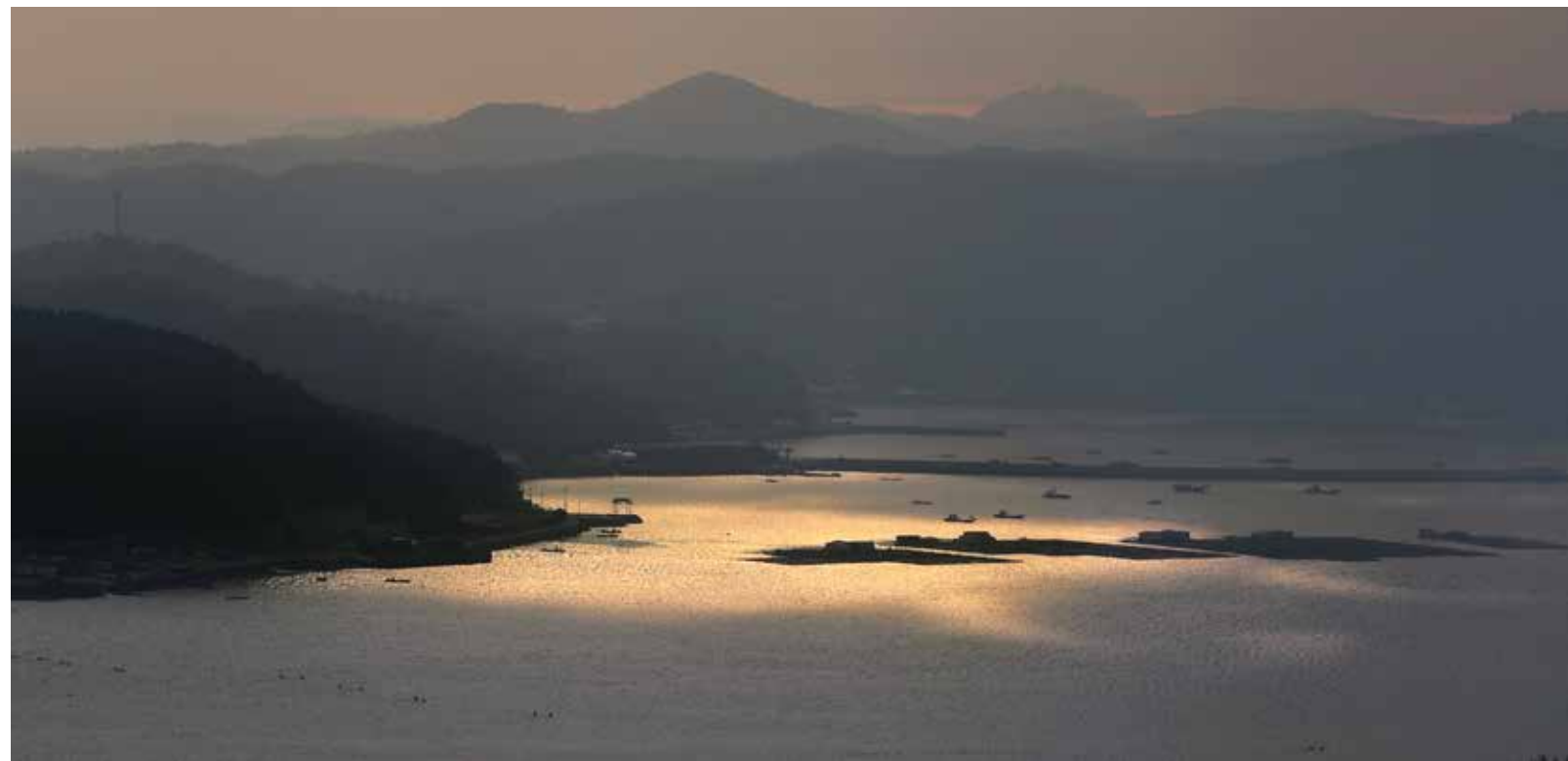
고금도에서 1999년 개통한 306m의 약산연도교를 건너면 남도 지역 섬 이름 가운데 '약'(藥) 자를 유일하게 쓰는 조약도(助藥島)다. 섬 안에서 100여 가지 천연약초가 나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면의 이름은 조약면이 아니라 '약산면'(藥山面)이다. 특히 강장효과가 뛰어난 삼지구엽초가 유명하고, 돌이 많은 산악지대에서 방목된 흑염소도 이 섬의 특산품이다. 조약도에 들어서면 봉우리 셋을 거느린 삼문산(三門山·397m)의 위용이 압도적이다. 삼문산 진달래공원은 봄이면 연분홍 빛이 군락지 5만여 평을 물들이고, 다도해의 풍광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공원에서 10분 떨어진 전망대에 서면 금일도·생일도·혈도·갈마도·소등도 등이 수석처럼 반짝인다. 삼문산 아래 오목하게 들어간 곳에는 동백숲해변으로 이름난 가사해수욕장이 있다. 수백 년 된 동백나무와 후박나무가 활처럼 흰 해안을 감싸고, 300m도 채 안 되는 해변에는 은빛 모래가 깔려 있다. 동백나무들은 일제히 꽃을 피우고 질 때면 '조약도의 최고 절경'을 연출한다. 약산연도교를 다시 건너 고금도로 나와 강진 마량항으로 간다. 도로 옆으로 1천200여 년 전 해상왕 장보고가 당나라에서 들여왔다는 유자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다. 온화한 해양성 기후와 사질 토양에서 자란 고금도 유자는 향이 진하다. 50여 기의 고인돌이 밀집한 가교리 고인돌군과 고금대교 완공탑이 서 있는 고금휴게소를 거쳐 2007년 개통한 760m의 고금대교를 건너면 천혜의 미항으로 손꼽히는 마량항이다.



고금도는
충무공의 넋을 기리는
충무사,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충무공의 시신을
83일간 봉안했던 월송대 등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이
아로새겨진 섬이다.



생잇국 준다'는 말이 있다. 대나무 지주를 꽂고, 채취하기까지의 매생이 양식은 섬사람조차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정도로 고된 노동으로 통한다. 낮설지만 아름다운 풍경 속의 매생이 양식장은 어민들의 묵묵한 삶이 응어리진 공간이기도 하다. 상정리 포구에서 나와 고금도 동쪽 끝으로 달리면 이순신 장군의 사당 충무사(사적 제 114호)가 나온다. 이순신 장군이 정유재란 때 수군 8천 명을 거느리고 수군본영을 설치한 곳으로, 이를 근거지로 왜병 30만 명을 무찌른 전승 유적지이기도 하다. 물도 풍부한 고금도는 농지가 많아 군량미를 해결할 수 있었고, 갯벌이 발달해 소금을 만들 수 있었다. 충무사 사당에는 이충무공이 직접 만들고 실전에 활용했다는 전진도첩(戰陣圖帖) 모사본이 전시돼 있고, 사당 왼쪽에는 숙종 39년(1713)에 건립한 관왕묘 묘비(廟碑)가 남아 있다. 충무사 앞 '소나무 사이로 달이 비춘다'는 월송대에는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이순신 장군의 시신을 아산 선영으로 모시기 전 83일간 안장했던 가묘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다.





2

해상왕 장보고의 청해진 유적지 '장도'

완도 장좌마을에서 목교를 건너면 청해진 본영이었던 장도다. 내성문과 외성문, 고대 등이 복원돼 있고, 성벽 아래엔 방어와 접안시설로 세운 목책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인근에 장보고기념관과 장보고 동상이 있다.



해남에서 완도대교를 건너 13번 국도를 따라 11km 달리면 통일신라 때 동아시아의 바다를 지배한 해상왕 장보고(張保皋: ?~841)의 청해진 유적지에 닿는다. 완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장보고는 당나라에서 군인으로 활약하다 해적들에게 붙잡혀 노예로 팔리는 신라인들을 지켜 주기 위해 귀국하여 흥덕왕 3년(828)에 청해진을 설치했다.

해적을 소탕한 이후 당과 신라, 일본을 잇는 동북아 해상무역을 장악했고, 아라비아 상인들로부터 이슬람 도자기, 유리제품 등을 신라와 일본에 공급하기도 했다. 해상왕으로 불리는 장보고는 신라 왕실의 왕위 계승 분쟁에 휘말려 자객 엄장에 의해 살해됐다. 이후 청해진은 폐쇄됐고, 완도 사람도 공도(空島) 정책으로 모두 섬에서 쫓겨나 고려 충정왕 3년(1351)까지 500년 동안 섬에 들어와 살 수 없었다.

청해진 유적은 장좌리와 죽청리, 대아리 일대에 퍼져 있는데, 1991년부터 2001년까지 10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통일신라 시대의 문양이 새겨진 기와, 동아시아 해상교류를 알려주는 중국의 자기, 토기 등 다양한 유적과 유물들이 발굴됐다.

전북을 열어놓은 듯
둥글넓적한 섬 장도에는
내성문과 외성문, 고대, 사당
등이 복원돼 있다. 통일신라시대
상선을 형상화한 건물 위에
높이 15.5m의 장보고
동상이 세워져 있다.





능선을 따라 쌓은 판축토성을 따라 돌면 다도해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고, 해마다 정월 대보름날 당제를 지내는 사당과 망루인 고대(高臺) 등을 만난다.

장좌리 마을 앞바다의 장도는 전복을 얹어놓은 형상의 둥글넓적한 섬으로, 청해진 본영이다. 길이 150m의 아치형 목교를 건너 청해진 유적(사적 제308호)에 들어서면 청해진의 옛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성벽을 따라 한 바퀴 도는 데 30~40분이면 충분하다. 외성문 바로 앞에는 청해진 1만 군사들의 식수원이었던 직경 1.5m, 깊이 3.4m의 우물이 있다. 2000년에 발견된 이 우물은 해수면보다 낮아 갈수기에도 물이 넘치고 지금도 맑은 물이 솟아난다.

흙을 다져 시루떡처럼 쌓은 성벽의 첫 관문인 외성문을 들어서면 내성문과 고대 등 복원한 건물이 한눈에 들어온다.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섬 지형을 이용, 능선을 따라 쌓은 판축토성은 총 둘레 890m, 최고높이 2.5m에 이른다. 판축층이 18겹일 정도로 견고한데 서산 해미읍성처럼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이른바 '공사실명제'를 실시했다고 전한다.

발걸음을 성벽의 서치로 옮긴다. 성곽길에선 동서남북의 다도해 풍광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데, 성곽의 일부를 돌출시켜 성벽에 가까이 접근한 적을 쉽게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든 치(雉)는 전망대 역할을 톡톡히 한다. 섬 안에는 서북치·동북치·동남치·서치 등 4개의 치가 있다. 섬 정상엔 해상왕의 얼을 기리는 사당이 있다. 해마다 정월



대보름날엔 동백나무 숲에 둘러싸인 사당에서 풍어와 해상 안전을 비는 당제(堂祭·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8호)를 지내고 있다. 사당 앞에는 중국 법화원에서 발견된 빗살무늬 뿔돌의 문양과 똑같은 뿔돌이 자리를 잡고 있다.

남쪽 성벽의 중간지점에 있는 망루 고대(高臺)에 서면 내성문과 외성문, 그 너머 고금도와 강진만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망루에 앉아 군사들을 호령하던 장보고를 떠올리며 옛 청해진의 위용을 생각해본다. 성벽 아래엔 통나무 목책(木柵)이 약 1천200년 세월의 더께만큼 닳은 모습으로 남아 있다. 1959년 태풍 사라가 지날 때 장도의 앞바다가 뒤집히면서 발견됐는데 장도의 남쪽에서 서북쪽 해안에 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높이 3~4m, 지름 30cm 내외의 소나무 가둥을 촘촘히 세워 만든 방어용 나무 울타리다. 밀물 때는 바닷물에 잠기고 썰물 때만 보이는데 밀물 때 배가 접근하면 목책이 암초 구실을 하는 것이다.

1천200년 역사를 들려주는 장보고기념관

장도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장보고기념관은 8~9세기 동북아 해상권을 장악한 장보고의 실체와 업적, 청해진의 흔적을 만나는 공간이다. 1층 중앙홀에는 날렵하고 파도에 강하며 암초에 의한 부분 파손에도 계속 항해를 할 수 있는 장보고 무역선(축적 1/4)이 전시돼 있다. 뿌리·생식·제국·항해 등 4개의 존으로 구성된 2층의 상설전시실은 장보고의 삶과 동북아 해상무역 활동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한·중·일 삼국의 고고학적 자료와 문헌기록 등이 전시돼 있다. 갈대를 상징하는 LED 조명을 해치면서 장보고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전시실에는 장도의 목책이 전시돼 눈길을 끈다.

김유숙 문화관광해설사는 "동북아시아 해상무역을 장악하며 한 시대를 호령했던 인물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며 "모형과 영상, 정보검색, 관람객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하는 전시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말한다.

장보고기념관을 나오자 높이 15.5m의 청동상이 되어 오른손에는 칼을, 왼손에는 '해상교역 물품' 목록을 든 해상왕 장보고가 눈에 들어온다.



장보고기념관

[관람 시간]

동절기(11~2월) 09:00~17:00, 하절기(3~10월) 09:00~18:00

[휴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입장료] 어른 1천원, 청소년 및 군인 700원, 어린이 500원



3

가우도 강진만 8개 섬 중 유일한 유인도

섬 양쪽에 출렁다리로 이어진 가우도는 강진만의 8개 섬 중 유일한 유인도다.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될 정도로 추운 겨울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가우도는 강진만의 8개 섬 가운데 유일한 유인도로 육지와 이어진 두 개의 출렁다리와 '함께해(海)길'이 조성돼 있다. 가우도는 2018년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아 선정한 '전라도 대표관광지 100곳' 중 하나다.

'모란이 피기까지는'의 시인 영랑 김윤식(1903~1950) 동상이 의자에 앉아 있다. '영랑나루 침터'의 동상 옆으로 영랑의 서정시가 걸려 있다.



'남도 답사 1번지'로 불리는 전남 강진은 질푸른 강진만의 해안과 접해 있다. 북쪽은 월출산 천황봉을 분기점으로 영암군과 경계를 이루고, 서쪽은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주작산과 덕룡산이 해남군과 경계를 이룬다. 동쪽으로는 수인산과 천개산을 경계로 장흥군과 접하여 있고, 남으로는 내륙 깊숙이 들어온 강진만의 청정해안 너머로 완도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강진만 한가운데에 면적 0.32km², 해안선 2.5km에 불과한 작은 섬이 떠 있는데, 두 개의 출렁다리와 해안산책길 '함께해(海)길'로 강진의 관광명소가 자리매김했다. 섬의 모양이 소의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가우도'(駕牛島)라는 이름이 붙었다. 가우도는 도암면 망호와 대구면 저두 양쪽에서 망호 출렁다리(716m)와 저두 출렁다리(438m)를 건너서 들어갈 수 있다. 출렁다리는 차는 갈 수 없는 도보 전용 다리다.



강진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출렁다리

해상인도교인 저두 출렁다리를 들머리로 삼았다. 강진만 주변의 바다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들로 만들어진 물고기 조형물을 지나 출렁다리를 건너다. 다리는 흔들리지 않지만, 강화유리를 깔아놓은 지점에 서면 바다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을 느낄 수 있다. 중간지점의 전망대에 서면 너른 강진만의 서정적인 풍경이 얼어붙은 감성을 깨운다.

다리를 건너면 해안 데크 길과 흙길로 꾸민 생태탐방로 '함께해(海)길'이 조성돼 있다. 숲 속으로 들어가는 오른쪽 흙길을 뒤로하고, 해안을 곁에 둔 왼쪽 데크를 따라 발걸음을 옮긴다. 옆으로 물결이 출렁인다. 썰물 때가 되면 차진 갯벌과 함께 돌을 쌓아 잡는 독살과 대발로 막아 잡는 덩장 등이 드러난다. 강진만은 최대 너비 약 7km, 길이 19km로 전체 해안선의 길이는 73.6km에 달하는 갈매기 모양이다. 해 질 녘 금빛 햇살을 머금은 갯벌은 잊지 못할 풍광을 선사한다.

강진만 풍경을 만끽하다 보면 시인 영랑 김윤식의 이름을 딴 '영랑나루 침터'에 닿는다. 의자에 앉아 해맑게 웃고 있는 영랑의 동상 주변으로 '모란이 피기까지는' '동백넙에 빛나는 마음' '내마음 고요히 고흔봄 길우에' 등 아름다운 서정시 세 편이 걸려 있다.

마냥 바다를 바라보며 시(詩) 한 수 읊어 본 뒤 산자락을 한 굽이 돌면 망호 출렁다리와 해상복합낚시공원이 푸른 물결 위에 떠 있다. 가우도 마을회에서 운영하는 낚시공원은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 유료 낚시터로 감





성돔 등 다양한 어종이 잡힌다. 뉘시공원 옆에 놓인 망호 출렁 다리는 가우선착장과 망호마을을 이어준다. 다리 전망대에 서니 다산초당과 백련사를 품은 만덕산과 주작산이 눈앞에 펼쳐진다. 다리 중간에서 다시 가우선착장으로 돌아온다. 선착장 인근에는 가우도치안센터, 마을식당, 황가오리빵 가게, 자판기, 매점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다. 가우도에서 많이 잡히는 황가오리에서 이름과 모양을 딴 황가오리빵은 강진 쌀과 단호박, 달걀로 만든 쌀 빵이다.

선착장에서 콘크리트 길을 조금 더 가면 14가구 30여 명이 웅기종기 모여 사는 마을이다. 마을 맨 위쪽에 자리 잡은 한옥 펜션이 특히 눈에 띈다. 약 600년 전부터 고씨(高氏) 성을 쓰는 20여 가구가 살다가 떠났고, 현재는 경주 김 씨가 가장 많이 살고 있다. 마을 앞 해변의 '다산 정약용 쉼터'에는 강진으로 유배 온 다산 정약용이 장남 학연을 만나는 모습을 형상화한 조각품이 세워져 있다. 학자 이전에 지아비이며 아버지였던 이유로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컸던 다산은 아들에게 "나는 벼슬을 하지 않아 너희에게 남겨줄 게 없다. 오직 두 글자의 놀라운 부적을 줄 테니 소홀하게 여기지 마라. 한 글자는 근(勤)이요 또 한 글자는 검(儉)"이라는 글을 보냈다. 아들을 유배지에서 맞이하던 다산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

길은 해안 댁을 지나 숲길로 이어진다. 후박나무와 나무수국, 곰솔, 사스레피, 금목서 등이 우거진 숲길은 고향의 품처럼 포근하다. 바다를 옆에 끼고 흙길을 걷다보면 해변가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오르막 산길도 만난다. '저두 출렁다리 0.2km, 짚트랙 0.35km'라고 적힌 안내표지판에서 산길을 따라 정상에 오르면 높이 25m의 청자타워가 우뚝 서 있다.

청자타워에서 출발하는 짚트랙은 저두 해안까지 내려가는 전국 최장의 해상 하강체험시설로 길이가 무려 973m에 달한다. 짚트랙을 타고 바다를 횡단하는 시간은 1분 남짓으로 라인이 3개라 연인·친구·가족끼리 공중에서 서로 마주 보며 아찔한 스릴을 즐길 수 있다. ⑦



대구면
하저아촌체할마을에서
바라본 강진만과 가우도.
썰물 때가 되면 차진 갯벌이
드러나고, 여름엔 바지락,
겨울엔 굴이 자천이다.
강진만 일몰은 눈을
호강시켜 준다.



INFORMATION

찬바람에 몸과 마음이 움츠러지는 요즘, 발걸음이 자연스레 사계절 따뜻한 남도로 향한다. 푸른 바다 위에 수백 개의 섬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는 완도, 수려한 자연과 함께 문화유적이 풍부해 '남도답사 1번지'로 불리는 강진은 겨울에도 비교적 포근한 여행지 중 하나다.



완도

완도타워

완도읍 동망산 정상에 세워진 완도타워는 다도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완도의 랜드마크. 아파트 17층 높이(51.4m)의 전망층에 오르면 다도해 풍광과 영암의 월출산, 제주도 한라산까지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타워 주변에는 '미소정원' '바다정원' 등이 조성돼 있다. 모노레일을 타고 동망산에 오르는 맛도 각별하다.



강진



사진 / 강진군청 제공

백련사

만덕산 중턱에 자리한 백련사는 신라 말에 창건됐다고 전해지는 천년고찰이다. 사적비(보물 제1396호)의 비문은 조정재(1631~1690)가 짓고 숙종 7년(1681)에 세워졌다.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팔작집이고 추녀마다 4개의 활주를 세워 건물을 받치고 있다. 백련사와 다산초당을 잇는 오솔길(2.1km)은 붉은 동백꽃으로 이름나 있다.



사진 / 백련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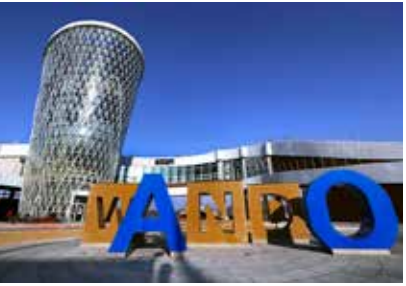
[정도리 구계등]

완도읍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정도리 구계등(九階燈·명승 제3호)은 파도에 밀려 갯돌의 층이 아홉 개의 계단으로 이뤄졌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갯돌의 크기는 다양하지만 하나같이 둥글다. 해변 길이는 750m, 폭은 83m. 무장애탐방로가 조성된 방풍숲이 자갈밭과 어우러져 있다.



[어촌민속전시관]

어촌의 생활사, 어획 방법, 수산양식의 실태, 선박의 발달사 등 어촌의 풍물에 관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특히 길이 180cm, 무게 144kg의 돛돔, 가시복 등 100여 종의 실물 크기의 박제, 대형 식인조개를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조개, 회귀 산호 등이 눈길을 끈다. 전통 선박에 직접 승선해 노를 젓는 체험을 할 수 있다.



[해조류센터]

완도항 중심부에 있는 해조류센터는 완도 청정바다에서 생산되는 해조류를 소개하는 국내 유일의 해조류 전문 전시시설이다. 제1전시실(해조류와 완도), 제2전시실(해조류 효능과 가치), 제3전시실(해조류 터널)에서 미래 해양헬스케어 자원인 해조류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다.



[고바우공원]

일몰 명소로 입소문을 탄 고바우공원에는 강진만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대와 함께 하트모양의 포토존이 조성돼 있다. 1층으로 된 전망대 내 카페 '분홍나루'에서는 강진만의 자연경관을 즐기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다. 2016년 전남도 친환경 디자인상 공모전에서 친환경디자인상을 수상했다.



사진 / 강진군청 제공

[영랑생가]

'모란이 피기까지는'을 남긴 영랑 김윤식 시인의 생가는 유작 시를 읽으며 영랑에 심취하기 좋은 공간이다. '누이의 마음이 나를 보아라' '마당 앞 맑은 새암물' 등의 시비들이 곳곳에 배치된 영랑생가에는 시의 소재가 되었던 장독대, 샘 등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 영랑은 80여 편의 시를 남겼는데 이곳에서 60여 편의 시를 썼다.



[다산초당]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 유배 18년 중 10여 년 동안 생활하면서 목민심서, 경세유표, 흙흙신서 등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한 곳이다. 다산초당 건물은 원래 목조 초가였으나 노후로 인해 붕괴되었던 것을 1957년 목조 기와집으로 복원했다. 정석(丁石)바위, 약천(藥泉), 차를 달이던 부뚜막 다조, 연지석가산(蓮池石假山)이 다산사경으로 불린다.